

여자축구 두 영웅 지소연-여민지 유쾌한 수다

“민지 활약에 큰 자극” “소연 언니는 내 우상”

두 여걸 스포츠동아와 단독 만남

향후 10년 간 한국 여자축구를 책임질 두 '가동'이 만났다. 주인공은 7월 독일 U-20여자월드컵 3위의 주역 지소연(19·한양여대)과 26일 막을 내린 트리니다드토바고 U-17여자월드컵에서 트리플크라운(우승-골든 부트(득점왕)-골든 볼(MVP))을 완성한 여민지(17·함안대산고). 워낙 바쁜 스케줄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내기 힘든 두 셋별이 스포츠동아와 단독으로 만나 30여분 동안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U-17여자대표팀 해단식 직후였다.

신세대 선수들답게 인터뷰는 유쾌한 수다에 가까웠다. 당차고 거침없는 '언니' 지소연이 시종 대화를 리드했다. 그러나 수줍은 듯 과묵한 '동생' 여민지도 자신의 포부를 밝힐 때만큼은 거침이 없었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이들에게 던진 첫 물음은 세계 정상을 일궈낸 17세 태극소녀들의 당찬 퍼포먼스였다.

지소연

느림보 민지, 많이 괴롭혔었는데... 동생들 매 경기 가슴졸이며 지켜봐 올해 AFC 어워즈요? 양보해야죠

여민지

소연언니 축구스타일 배울 점 많아 동생노릇도 제대로 못해 항상 죄송 월드컵무대 언니랑 같이 뛰고 싶어



- 서로의 월드컵 경기를 다 지켜봤습니까.
지소연(이하 지) : (당연하다는 듯) 매 경기 가슴 졸이면서 봤죠. 쉽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도 따라가고, 먹고도 따라잡고, 하긴 누구보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니까요. 뭐랄까 같이 뛰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니까요.
여민지(이하 여) : (수줍은 듯) 아뇨. 언니들이 훨씬 잘했어요. 확실히 세계 수준에 더 가깝게 도달한 것은 언니들이었죠. 우승은 저희가 했지만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지 : 아네요. 솔직히 운은 우리도 많이



지소연(왼쪽)과 여민지가 29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1면을 장식한 스포츠동아를 들고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문 속에서 오른팔을 힘차게 치켜 든 지소연과 두 팔을 활짝 벌린 여민지의 모습에서 한국 여자축구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따라준 편이에요. U-20 여자월드컵 4강 때 독살하고 만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생들이 대신 저희의 꿈을 이뤄줬잖아요. 그럼 된 거죠.

- 둘의 첫 만남을 기억하나요.

지 : 2007년 8월쯤이었나. 19세 이하 대표팀 소집 때 처음 봤어요. 민지가 그때 많이 어렸었지?(동생을 쳐다보자 고개를 끄덕인다) 같이 훈련할 때 보니 어린 선수답지 않게 대단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언니들에게 뒤지는 것도 별로 없었고.
여 : 사실 소연 언니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항상 느꼈어요. (옆에서 여민지 어머니 임수영 씨가 거든다) 어렸을 때부터 소연이가 민지 우상이었어요. (정말이냐고 재차 묻자 여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소연 언니를 보면서 지금까지 축구를 해왔어요.(지소연이 기분 좋다는 듯 반색)

- 서로 고칠 점을 하나씩 짚어 준다면.

지 : (곰곰이 생각한 뒤) 솔직히 단점은 없어요. 민지가 정말 좋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성인 무대도 있고, 20세 대표팀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성인 무대

에서 같이 뛰었으면 해요. 아,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도요.

여 : 지금 여자축구성인대표팀에도 공격진에는 좋은 실력을 갖춘 언니들이 많은데, 저도 제 나름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요. 장점을 부각시켜서 내년에는 소연 언니와 꼭 함께 잘해보고 싶은걸요.

- 두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함께 뛰는 상상을 해 봤나요.

여 :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 구제적으로 어떤 점이 기대되는지요.

여 : 글썽요. 한층 더 수준 높은 패스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좋아요.

-올 연말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여자 청소년선수상을 놓고 경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한 두 분의 심정은.

지 : (집짓 아쉬운 표정으로) 아, 이번에는... 아니, 제가 안 돼요 안 돼. 동생한테도 양보할 줄 알아야죠.

여 : (언니의 말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아뇨. 활약만 놓고 보면 언니가 훨씬 멋있게 경기를 했는데요...

- 여자축구인들이 둘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한데.

여 : 일단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가야할 길도 멀고, 좋은 언니들이 많아서 본받아 더욱 공격적으로 저돌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 : 2015년 여자월드컵에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때쯤이면 17세 동생들과 저희 20세 언니들이 모두 전성기니까 힘을 합치면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둘의 성격은 어떤가요.

지 : 전 많이 활발한 편인데, 민지는 반대예요. 조금 느리고(웃음) 밥 먹는 것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대표팀에서 한 방 쓸 때 제가 좀 많이 괴롭혔죠. 그렇다고 진짜 구박한 건 아니구요.
여 : 제가 앞으로 언니에게 연락을 자주 드릴게요. 죄송해요. 연락 못해서. 동생 노릇 잘 해야 하는데...

-향후 진로는.

지 :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미국이죠. 아직 다른 국가들의 리그가 진행 중이니 여러 곳에서 얘기가 오갔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죠.

여 :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해외 진출은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영어 공부를 해둬야 할 텐데.
지 : (영어 공부란 말에 지소연이 잠시 발끈) 나도 아직 안 했대. 아.

-최근 여민지의 축구일기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 : 저희들도 축구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다보니 꼼꼼히 기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민지 일기 얘기는 친구가 알려줘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분발 좀 해라." 아휴 20세 월드컵 끝내고 이제 모처럼 휴식을 취하나 했더니 민지 때문에 전화통에 더 붙어 나 여유가 없네요.

윤택석 기자 sport@donga.com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콤팩트뉴스



26일(한국시간) 열린 FIFA U-17 여자월드컵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확정지은 여민지(가운데)와 동료 선수들이 축하하는 모습. 여민지는 마지막 키커로 나선 장슬기(등번호 3번)를 향해 선수들이 뛰어오고 있다. 포토보스페인(트리니다드토바고) | 연합뉴스

“결승전 PK 6번째 키커 장슬기 자원”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마지막 승부차기 골로 승리를 이끈 여섯 번째 키커는 감독의 지시가 아닌 선수 본인이 자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청와대를 방문한 대표팀 선수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뒤 뉘엿뉘엿 밝혀졌다.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과의 결승전 당시 한국 대표팀의 최덕주 감독은 승부차기 정규 키커인 5번째 키커까지만 선수를 지정해줬다. 그러자 결승전의 주인공 장슬기가 여섯번째 키커 자리에 스스로 가서 줄을 섰고, 결국 양팀이 5번 키커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해 자신에게 차례가 오자 과감한 슈트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경상남도, 축구부 1억2000만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4개 초·중·고등학교 여자 축구부에 모두 1억 2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별 지원 금액을 보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U-17 여자월드컵 우승에 이바지한 함안 대산고가 5000만원, 함안 함성중이 3000만원, 창원 명서초와 거창초가 각각 2000만원이다. 함안 대산고 여자 축구부 김은정 코치와 여민지, 이정은에게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30일 여민지 등의 귀국 환영행사가 함안군에서 열리는 가운데 군청을 초도 방문하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이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한다.

해외파 태극전사 내달 7일 조기 소집

해외파 태극전사들이 10월 12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본과의 평가전을 대비해 먼저 훈련을 시작한다. 조광래 대표팀 감독은 29일 오후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 대표팀 환영 및 해단식'에 참석해 "다음 달 7일 해외파 선수들을 먼저 소집해 일본과 경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K-리거들은 10월 10일 훈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조 감독이 일본전을 위해 소집을 요청한 해외파는 모두 11명이다. 대표팀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이창용(불탄), 박주영(AS모나코), 차두리, 기성용(이상 셀틱) 등 유럽파 5명과 이영표(알 힐랄), 이정수(알 사드), 조영형(알 라얀), 곽태휘(교토), 조영철(니가타), 김영권(도쿄) 등이 조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UEFA 챔피언스리그 전통경기를 순항

이번엔 없었다. 전통의 명가들이 정상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역대 최다우승(9회)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29일(한국시간) 오세르(프랑스)와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후반 36분 앙헬라리아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둬 2연승을 달렸다. 잉글랜드의 첼시와 아스널도 각각 마르세유(프랑스), 파르티잔(세르비아)을 누르고 2연승을 달렸다. 첼시는 런던 스탬퍼드 브릿지에서 열린 F조 2차전에서 존 테리와 니콜라 아벨라의 연속골로 2-0으로 제압했고, H조 아스널은 아르사빈-사미르-스킬라치의 득점으로 3-1 대승을 챙겼다.

편집 | 장문규 기자 nikkang@donga.com

인프라 확충!...세계정복 여·지 넓혀라

〈여민지·지소연〉

이제는 2015여자월드컵이다

1. 한국여자축구의 현주소
2. 황금세대가 마련한 절호의 기회
3. 2015월드컵 우승을 위한 조건들

현장에 있는 일선 지도자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저변 확대'와 '4년제 대학교 창단'을 꼽는다. 두개의 과제는 별개가 아니다. 한 묶음에서 바라봐야 한다.

축구를 하려는 어린 여학생들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초등학교 팀이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진학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감독들의 주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선수 발굴이다. 지원자가 없다보니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말에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 막상 '보석'을 발견하고도 실득할 길이 막막하다.

경남 명서초등학교 배성길 감독은 "초등학교 감독들이 늘 고민하는 게 선수 수급이다. 선수나 학부모에게 선풍 축구를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원

U20·U17 연이은 패거 변화 바람 학부모 "축구 시키고 싶다" 연락도 4년제 대학교 팀창단 등 과제 시급

없이 신나게 가르쳐 보는 게 우리의 소박한 꿈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국내 여자대학교 축구팀은 한양여대, 여주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강원도립대, 위덕대 등 6개. 모두 2년제다. 남자와 같이 명문대가 여자 팀을 창단한다면 그 반응이 즉각적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에 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 지도자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월급도 110만원 정도로 열악하다. 모 초등학교 A감독은 "솔직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입장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인프라 확충, 유망주 육성 병행돼야

다행스러운 건 U-20, U-17여자대표

팀의 연이은 선전으로 작지만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 감독은 "U-17 여자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3명의 학생, 학부모로부터 축구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에 없던 일이다"며 웃음을 지었다.

국제대회 성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유망주 발굴과 육성 작업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

여자대표팀 최인철 감독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 독일 성인여자월드컵 출전 티켓을 따지지 못한 게 정말 뼈아프다. 최근 상승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제대회는 많이 남아 있다.

U-20, U-17 황금세대가 성인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제2의 지소연과 여민지가 계속 발굴된다면 2015년 세계무대 정상 등극도 불가능하지 않다. 〈끝〉

윤택석 기자 sport@donga.com

21명 태극소녀들 위대한 마침표

▶▶U-17 여자축구대표팀 해단식 표정



▲李 대통령과 함께 U-17여자대표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운데)와 오찬을 함께 했다. 영부인이 여민지로부터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대표팀 유니폼을 선물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소녀 씩씩합니다~ 선수단은 오찬 직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로 이동해 해단식을 가졌다. 운동복이 아닌 정장 차마를 곁에 차려 입은 모습이 이색적이다. 선수들이 최덕주 감독의 애창곡인 마야의 '나를 외치다'를 부르며 씩씩워하고 있다. 연합뉴스